

이름: 이은성

이메일:

나이: 9 살 2 학년 사방반 거주지역: 아산 읍봉

본 행사 참여경험(우측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2013 2014 2015 처음참여

아주살 편지쓰기

곧 스승의 날이다. 편지 보내고 싶은 선생님이 16명이나 생겼다. 처음에는 만화로 그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모자랐다. 그래서 그림책에서 선생님을 닮은 캐릭터를 열심히 골라 이름표를 붙였다. 교장선생님은 웃는 눈에, 염이 쿄 어려워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목사님은 놀이랑 입이 크다. 정의정 선생님은 옷이랑 표정이 똑같고 막대기를 들고 있다. 이경섭 선생님은 키가 크다. 선생님들 사랑해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높은뜻 씨앗들의 산재기
고학년 이은성 기록
월라노트하고 어려운 선생님
1학기였어요 그걸 더 씨앗으로
스승의날 편지 보내 싶은
선생님이 많았던 학교예요.
그래서 다 그려보려 했어요.
선생님들 이름들은
캐릭터로 만들었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퀴즈 고양이네야옹과
한국대학생제작개인전
깃을 빙 머물만 하면?



네, 동의 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문 학술연구진만 제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http://omeka.harchives.org/>